

④ ⇒ 귀납의 다양한 유형이 소개된 것이 아니라 귀납의 논리적 한계를 두 가지 소개할 뿐이다. 그러므로 선지의 뒷 부분(각각의 특징을 상호 비교)은 따져볼 필요도 없다.

23. <철학>

#대립 선지 #전체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8 %	88 %	2 %	2 %	5 %	1 %

◆정답 ①

*먼저 **흠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즉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 버린다는 것이다. [2문단]

⇒ 많은 관찰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그 증거들도 마찬가지로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고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순환 논리에 빠진다.

그래서 관찰 증거의 양과 순환 논리 문제의 해결은 상관이 없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관찰해온 경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절대적 확증을 제공해야만 순환 논리 문제가 해소된다.

▶ 지문: A 하더라도 B는 안됨 → (부적절 선지: A 하면 B가 가능)

◆오답 풀이

②

*이처럼 **확률 논리로 설명되는 개연성은 일상적인 직관에도 잘 들어맞는다.** 이러한 시도는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납은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지킬 만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끝문단]

⇒ 직관에 들어맞는 확률 논리라 하더라도 귀납의 논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함.

③

*이들은 귀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확률을 도입하여 개연성이라는 귀납의 특징을 강조하려 한다. 이에 따르면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즉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은 확률로 표현될 수 있다.**[끝문단]

⇒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입장은 귀납을 옹호한다.

④

*먼저 흠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 버린다는 것이다. [2문단]

⇒ 흠에 따르면, 귀납의 정당화는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에 근거해야 가능하다.

⑤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 [1문단]

⇒ 귀납의 지식 확장적 특성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을 추론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 지문: A하는 B → (적절 선지: B는 A를 하다)

★대단히 유용한 팁★

♣대립 선지의 법칙?

☞ 선지의 일정한 패턴을 통해서 정답의 가능성을 파악하여 문제 풀이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5개의 선지중 하나의 선지가 산술적인 정답의 확률은 20%이지만 **선지의 내용 중 전체 혹은 그 일부라도 서로 반대(대립, 모순, 부정)의 맥락을 이루면 그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지의 정답 확률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부정형 발문에서 자주 적용됨)

1대1 대립 (두 개의 선지 중 하나: 70% 이상)

1대2 대립 (1의 비율 선지: 80% 이상)

1대3 대립 (1의 비율 선지: 90% 이상)

*위 문제는 **논리 문제 해결**에 관해 ①은 긍정적 ⇔ ②는 부정적으로 선지가 1대1 대립을 이룬다.

①~순환 논리 문제는 **해소된다.** (긍정) ☞ (☆실제 정답)

②~귀납의 논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부정)

그래서 ①, ② 두 개의 선지 중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이상 이 된다.

▶ 출제자는 정답을 먼저 만들고 이와 반대 맥락의 오답을 만드는 심리가 있다. 이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다르다! 문제를 풀 다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선지가 보인다면 다른 선지 쌍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 사소한 팁 하나가 문제 풀이 시간을 절약해 1점 더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보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24. <철학>

#평가 #의의 #선행적 #인물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77 %	4 %	5 %	6 %	6 %	77 %

◆정답 ⑤

- 1) 먼저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 그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3문단]
- 2) 결국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라이헨바흐의 논증은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3문단]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지 경우의 두 가지 상황으로 논증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일양성만을 의의로 말한 선지 ⑤는 평가로 적절하지 않다. 게다가 자연의 일양성은 경험에 따른 것(**경험 이후**)으로 보았기에 **선행적** 지식임을 증명했다고 보기엔 더욱 무리가 있다.

(***선행적**: 경험 이전에 인식의 주관적 형식이 인간에게 있음)

▶지문: A는 B와 C에 해당→(부적절 선지: A는 B에만 해당)
빈출 유형 ☆

◆오답 풀이

①

*결국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라이헨바흐의 논증은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3문단]

⇒ 귀납의 문제를 현실적 차원의 해소일 뿐이지 귀납이 지닌 논리적 허점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님.

②

***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라이헨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 구체책을 제시한다.[3문단]

⇒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지지하려는 목적에서 시도함을 알 수 있음.

③

*~그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

이라고 확인한다.[3문단]

⇒귀납과 다른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경험적 판단과 논리적 판단을 모두 활용함.

▶지문: 1 문장+1 문장 → (적절 선지: 하나의 결론장)

④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귀납의 가치)**이라고 확인한다.[3문단]

⇒귀납과 견주어 미래 예측에 더 성공적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귀납의 가치를 보여 주고 있음.

♣ ~에 대한 평가 문제라 어려워 보이지만 라이헨바흐가 있는 곳은 3문단 밖에 없어 비교적 쉽게 정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5. <철학>

#부정형 대립 선지 #3점 #보기 제시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4 %	3 %	2 %	2 %	5 %	84 %

◆정답 ⑤

⇒ <보기>에서 B의 입장은 '미결정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이며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4문단 1~2문장]는 것과 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B가 (L)을 (T)보다 더 나은 예측으로 채택(→결정)을 한다는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1문단]

⇒ <보기>에서 A와 B는 예측의 방법으로 귀납을 인정하니 (T)과 (L)이 모두 기존의 관찰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문: A는 B의 특성이 있다

→(적절 선지: C는 A이니까 B의 특성 있다)

② ⇒ <보기>에서 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 A는 확률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끝문단 4문장]과 입장이 같다. 즉,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②의 A는 (T)과 (L) 중 하나가 더 나은 예측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 지문: A는 B의 입장이다
→(적절 선지: C는 A의 입장이기에 B의 입장과도 같다)

③ ⇒ <보기>에서 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 A는 확률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 정보인 (해마다 10℃씩 4차례 상승에 1차례 10℃상승이 더해짐)에 따라 (ㄱ)이 옳을 개연성이 더 높아진다고 본다.

④ ⇒ <보기>에서 B는 예측의 방법으로 귀납을 인정하기에 (ㄱ)에 대해서 가능한 예측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결정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이며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4문단 1~2문장]는 것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ㄱ)이 (ㄴ)보다(혹은 반대이더라도) 더 나은 예측이라고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지문: A는 B의 입장이다
→(적절 선지: C는 A의 입장이기에 B의 입장과도 같다)

★ 대단히 유용한 팁 ★

♣ **대립 선지의 법칙?**

☞ 선지의 일정한 패턴을 통해서 정답의 가능성을 파악하여 문제 풀이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5개의 선지중 하나의 선지가 산술적인 정답의 확률은 20%이지만 **선지의 내용 중 전체 혹은 그 일부라도 서로 반대(대립, 모순, 부정)의 맥락을 이루면 그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지의 정답 확률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부정형 발문에서 자주 적용됨)

- 1대1 대립 (두 개의 선지 중 하나: 70% 이상)
- 1대2 대립 (1의 비율 선지: 80% 이상)
- 1대3 대립 (1의 비율 선지: 90% 이상)

*위 문제는 B를 주체로 더 나은 예측의 결정에 관해 ④은 부정적 ⇔ ⑤는 긍정적으로 선지가 1대1 대립을 이룬다.

④ B는 ~ 더 나은 예측이라고 결정하지는 않겠군. (부정)
☞ (☆실제 정답)

⑤ B는 ~ 더 나은 예측으로 채택하겠군. (긍정)

그래서 지문 및 문제와 상관없이 ④와 ⑤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이상이다.

▶ 출제자는 정답을 먼저 만들고 이와 반대 맥락의 오답을 만드는 심리가 있다. 이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다르다! 문제를 풀 다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선지가 보인다면 다른 선지 쌍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 사소한 팁 하나가 문제 풀이 시간을 절약해 1점 더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보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한 시험의 한 지문에서 두 문제 씩이나 대립 선지형이 출제되었다! 분명 사소한 팁은 아닌 듯하다!”

26. <어휘>

#문맥적 의미 고려 #가장 가까운 것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8 %	88 %	0 %	1 %	8 %	1 %

◆ 정답 ①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빠져를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다음 문장까지)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한다.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

⇒ 뒤 문장(문제→부정적 의미) 때문에 '순환 논리에 ㉠빠지다'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순환 논리도 마찬가지로 문맥상으로는 부정적이다. 사전적 의미로 따져보면, 궁지에 빠지다, 도탄에 빠지다, 위험에 빠지다 처럼 '~에 곤란한 처지에 놓이다'가 된다. 이와 가장 가까운 뜻을 가진 것은 ①번 하나이다.

[지문] 순환 논리(→부정적)에 ㉠빠져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 →(부정 맥락)

① 혼란(⇒부정적)에 빠진 적군은 지휘 계통이 무너졌다.
(→부정 맥락)

◆ 오답 풀이

- ② ⇒ 정신이나 기운이 줄거나 없어지다.
- ③ ⇒ 물이나 구덩이 따위 속으로 떨어져 잠기거나 잠겨 들어간다.
- ④ ⇒ 차레를 거르거나 일정하게 들어 있어야 할 곳에 들어 있지 아니하다.
- ⑤ ⇒ 남이나 다른 것에 비해 뒤떨어지거나 모자라다.

♣ 어휘 문제는 언어 감각이 많이 좌우되지만 **문맥을 고려하면 정답의 단서를 찾을 수도 있다.**

※27~30, <민사 소송에서의 기판력>

*주제: 소송에서 부관의 법률적 효력

- 1) 프로타고라스와 에우아틀로스 사이의 수강료를 둘러싼 분쟁
- 2) 계약의 부관인 '기한'과 '조건' ⇨ (27번 정답 근거)
- 3) 확정 판결이 갖는 '기판력' ⇨ (29번 정답 근거)
- 4)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 5) 프로타고라스와 에우아틀로스 사이의 분쟁의 해결 ⇨ 28번 정답 근거)

- 1) *사례: 에우아틀로스(E)가 프로타고라스(P)에게 계약 제한
- 2) *부관: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임.
*기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
*조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
*정지 조건: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
*해제 조건: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소멸
- 3) *기판력 인정: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 혹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됨.
→(더 이상 같은 소송을 다툼 불가)
- 4)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
→ 확정 판결 이후라도 재소송 허용
- 5)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으므로)
→ 확정 판결 이후 P는 재소송 가능. P가 승소.
▶ P의 E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27. <사회>

#전체이해 #정답률왜이래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65 %	65 %	8 %	9 %	11 %	4 %

◆정답 ①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2문단]

⇒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했으니, 승소를 못해서 수강료를 못내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승소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로 승소는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은 아니기에 의무에 대한 기한이라 할 수 없고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안 일어날 수도 있음)이기에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조건이다.

◆오답 풀이

②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2문단]

⇒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점이 공통됨.

③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부른다.[2문단]

⇒ 계약에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음.

④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3문단]

⇒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 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3문단]

⇒ 기판력에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 법원 스스로 그와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가 있음.

♣ 비문학 일치-불일치 유형 발문 별 난이도

- * (윗글을 통해 바르게 추론한 것은?) ≥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윗글과 일치하는 것은?)

28. <사회>

#추론 #풀이시간오래걸림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68%	8%	8%	68%	8%	5%

◆정답 ③

- 1)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1문단]
- 2)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문단]
- 3)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끝문단]

⇒ P는 첫 소송으로 수강료를 받으려했지만 1) E의 승소로 수강료를 내지 않아 P는 다시 수강료를 받기 위해 두 번째 소송을 할 것이다. 1)+ 2)

♣추론 문제는 최소한 지문에서 2개 이상의 문장이 조합되어 선지의 정오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1문단]

⇒ E의 제안(계약)이 없었더라면 E는 승소와는 상관없이 수강료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 계약은 P가 E로부터 수강료를 받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P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음을, 반대로 E는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것이다.

②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끝문단]

⇒ E의 승소 판결 후 수강료를 낼 의무가 없으니 P가 두 번째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②의 추론은 적절하지 않음.

④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끝문단]

⇒ E는 첫 승소 판결을 받았기에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라고 표현한 선지 ④는 잘못된 추론임.

⑤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E의 승소 경험이 없기 때문)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E의 승소 경험이 있음)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끝문단]

⇒ 두 번째 소송은 첫 번째 소송의 결과(E의 승소 경험이 있음)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두 판결 가운데 하나는 무효일 것이라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29. <사회>

#상식이아닌지문에근거 #대립선지 #3점 #보기제시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66%	5%	9%	5%	12%	66%

◆정답 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 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3문단]

⇒ <보기>의 (나)의 경우는 갑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그 이후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2015년 11월 30일 이전에 다시 소송을 할 수 없다. ⇨(재 소송은 2015년 11월 30일 이후에 가능함)

♣상식이 아닌 지문을 근거로 풀라!

⇨상식적으로 첫 재판을 계약서 없이 부족하게 했으니 첫 재판을 무효로 처리하고 다시 재판을 해야만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지문은 상식과는 다르다. 지문은 일단 부족하게 재판을 했어도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이전 재판의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서 혼란이 생기며, 법원측에서도 불필요한 절차를 거듭하게 될 뿐 아니라 당사자 또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때론 상식으로 문제가 풀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항상 지문에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동시 풀이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3문단]

⇒ (가)의 경우는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생겨 더 이상 상소할 수 없다.

①: ~상소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

②: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나)의 경우는 2015년 11월 30일이 되지 않은 이유로 갑에게 패소 판결 확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을은 2015년 11월 30일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④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4문단]

⇒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나)의 경우(2015년 11월 30일 이전)와는 다른 새로운 사정이 생긴 것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대단히 유용한 팁★

♣대립 선지의 법칙?

☞ 선지의 일정한 패턴을 통해서 정답의 가능성을 파악하여 문제 풀이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5개의 선지중 하나의 선지가 산술적인 정답의 확률은 20%이지만 선지의 내용 중 전체 혹은 그 일부라도 서로 반대(대립, 모순, 부정)의 맥락을 이루면 그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지의 정답 확률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부정형 발문에서 자주 적용됨)

1대1 대립 (두 개의 선지 중 하나: 70% 이상)

1대2 대립 (1의 비율 선지: 80% 이상)

1대3 대립 (1의 비율 선지: 90% 이상)

*위 문제는 금전 요구의 소송의 가능성에 대해 ②은 부정적 ⑤는 긍정적으로 선지가 1대1 대립을 이룬다.

②~금전을 갚아 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정)
⑤~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 (긍정) ☞(☆실제 정답)

그래서 지문 및 문제와 상관없이 ②와 ⑤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이상이다.

☞두 선지 (가), (나)의 경우로 대상은 다르지만 그래도 서술어 부분만 대립되면 대립 선지형 문제로 간주한다. (물론 같은 대상으로만 통계를 내면 정답 가능성은 더 높아짐)

▶ 출제자는 정답을 먼저 만들고 이와 반대 맥락의 오답을 만드는 심리가 있다. 이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다르다! 문제를 풀 다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선지가 보인다면 다른 선지 쌍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 사소한 팁 하나가 문제 풀이 시간을 절약해 1점 더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보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30. <어휘>

#바꿔쓰기 #한글-한자 #어휘만들었어요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51 %	5 %	51 %	7 %	19 %	15 %

◆정답 ②

⇒ ‘부가하다’는 ‘주된 것에 덧붙이다’라는 뜻이므로, ①‘덧붙이는’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다. ⑥‘덧붙이는’의 전후 맥락을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다! 나머지 선지는 단어의 맥락을 필히 알아야한다.

◆오답 풀이

①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②**받아들였다**(어떤 사실 따위를 인정하고 용납하거나 이해하고 수용하다).

⇒‘수취하였다’(거두어 모으다)가 아닌 ‘**수용하였다**’(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로 바꿔 쓸 수 있음.

③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③**부른다**(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

⇒‘지시한다(가리켜 보게 하다)’가 아닌 ‘**지칭한다**’(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다)로 바꿔 쓸 수 있음.

④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④**생겼을**(없던 것이 새로 있게되다)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 1) 그것은 아마 나의 고가(古家)가 헐리던 날이었을 게다. 남편은 결혼식을 치르자 제일 먼저 고가의 철거를 주장했다.→(결혼식 직후부터 갈등)
- 2) 고가의 철거는 신속히 이루어졌다. 나는 그 해체를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지켰다.
- 3) 아버지와 오빠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집, 어머니가 임종의 날까지 그렇게도 집착하던 고가. 그것을 그들이, 생면부지의 **낯선 사나이(남편)**가 산산이 해체해 놓고 만 것이다.
- 4) 쓸모 있고 견고한, 그러나 속되고 네모난 집이 남편의 설계대로 이루어졌다. 현대식 시설을 갖춘 부엌과, 잔디와 조그만 분수까지 있는 정원이 있는 아담하고 밝은 집. **모두가 남편의 뜻대로 되었다.** →(남편의 뜻은 나의 뜻과 반대)
- 4) ‘흠, 당신(남편)이 생각해 낼 만한 **천박한** 추측이군요.’
- 5) ‘암, 몰라야죠. **당신(남편) 따위가** 알 게 뭐예요. 그분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는 걸 **당신(남편) 따위가** 알 게 뭐예요.’ 남편은 신문을 떨구고 기지개를 늘어지게 폈다. 나는, 젖힌 그의 얼굴에서 동굴처럼 뚫린 콧구멍과 그 속을 무성하게 채운 코털을 보며 잠깐 **모멸과 혐오**를 느꼈다. →(나는 남편을 부정적으로 봄)
- 6) 부스스한 머리가 늘어진 이마에 어느새 굵은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한 중년의 그가 **나는 또다시 낯설다.**

◆오답 풀이

- ②
- *㉠남편은 이런 장사꾼들과 몇 푼의 돈 때문에 큰소리로 샷대질까지 해 가며 **영악하게 흥정을 했다.** →(물질적, 세속적, 계산적인 성격) ㉡나는, 젖힌 그의 얼굴에서 **동굴처럼 뚫린 콧구멍과 그 속을 무성하게 채운 코털을 보며 잠깐 모멸과 혐오를 느꼈다.**→(남편을 불편하게 생각)
- ③
- *㉠나는 아직도 그의 아내로서 편치 못한 나를 해체시켜, **그의 아내로서 편한 나로 뜯어 맞추고 싶었다.** →(나와 남편의 동화를 원함) ㉡그러고 보니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이가 내 은밀한 곳에 남아 있는지도 몰랐다.** →(여전히 ‘남편’에게 동화되지 않는 나)
- ④
- *㉠나는 아직도 **그의 아내로서 편치 못한 나를 해체시켜, 그의 아내로서 편한 나로 뜯어 맞추고 싶었다.** →(‘남편’에 대한 나의 태도 변화 심리) ㉡나는 **충동적으로(→돌발적)** 그의 이마의 주름 진 곳에 그런 **키스(→나의 감정 변화)**를 퍼부었다.
- ⑤
- *㉡다만 나는 후원의 **은행나무들만은 그대로 두기를 완강히 고집(→집착)**했다. ㉢그러고 보니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이가 내 은밀한 곳(→잠재 의식)에 남아 있는지도 몰랐다.**

32. <현대소설>

#대립선지 #3점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4 %	1 %	1 %	94 %	1 %	0 %

◆정답 ③

*고가의 철거는 신속히 이루어졌다. 나는 그 해체(철거)를 견딜 수 없는 아픔(부정적 심리 상태)으로 지켰다.
→(남편의 고가 철거는 곧, 나의 아픔)

⇒ 남편의 고가 철거는 곧, 나의 아픔이 되기에 고가의 철거가 ‘나’와의 친밀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남편’의 의지로 보기 어렵다.

◆지문 어디를 보더라도 남편이 나와 친밀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행위는 찾기 힘들다. 하지만 내가 남편과 긍정적 관계를 회복하려는 부분은 있다.

- 1) 나는 아직도 그의 아내로서 편치 못한 나를 해체시켜, 그의 아내로서 편한 나로 뜯어 맞추고 싶었다.
- 2) 나는 충동적으로 그의 이마의 주름 진 곳에 그런 키스를 퍼부었다.

⇒ 친밀감을 회복하고자하는 주체(나 혹은 남편)에 따라 지문에 있는 내용 혹은 없는 내용이 된다. **출제자는 주체를 적절하지 않게 잘 바꿔놓기 때문에 항상 서술어에 해당하는 주체를 바르게 판단하자!**

◆오답 풀이

- ①
- *터무니없이 넓은 대지에 불합리한 구조로 서 있는 음침한 고가는 불필요한 방들만 많고 손댈 수 없이 퇴락했으니, 깨끗이 헐어 내고 대지의 반쯤을 처분해서 쓸모 있는 견고한 양옥을 짓자는 것이었다.
- ⇒ 고가의 철거 결정에는 ‘남편’의 실용적(실제로 쓰기에 알맞은)인 가치관이 작용함.
- ▶ 지문: 한글 →(적절선지: 동일 의미의 한자) / 쓸모 있다→실용적
- ②
- *깨끗이 헐어 내고 대지의 반쯤을 처분해서 쓸모 있는 견고한 양옥을 짓자는 것이었다.
- *쓸모 있고 견고한. 그러나 속되고 네모난 집이 남편의 설계대로 이루어졌다. ~모두가 남편의 뜻대로 되었다.
- ⇒ 고가의 철거를 주장한 ‘남편’은 ‘견고한 양옥’의 설계에서도 자신의 뜻을 반영함.

④

*아버지와 오빠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집, 어머니가 임종의 날 까지 그렇게도 집착하던 고가. →(과거 고가의 추억)

*나는 나 자신의 욕신이 해체되는 듯한 아픔(갈등)을 의연히 견디었다.

⇒고가는 과거의 '나'가 투영된 대상으로 '나'의 의식 속에 환기되어 내면의 갈등상태를 드러냄.

⑤

*남편은 결혼식을 치르자 제일 먼저 고가의 철거를 주장했다. 터무니없이 넓은 대지에 불합리한 구조로 서 있는 **음침한 고가**는 불필요한 방들만 많고 손댈 수 없이 퇴락했으니, 깨끗이 헐어 내고 대지의 반쯤을 처분해서 쓸모 있는 견고한 양옥을 짓자는 것이었다.

*다시는, 다시는 아침 햇살 속에 기왓골에 서리를 이고 서 있는 **숙연한 고가**를 볼 수 없나니.

⇒서술자는 '나'이기에 고가를 숙연하게 보는 이는 역시 '나'이다

⇒고가를 '남편'은 '음침한 고가(타과 대상)'로, '나'는 '숙연한 고가(희망 대상)'로 표현하여 인물에 따른 관점의 차이를 드러냄.

★대단히 유용한 팁★

♣대립 선지의 법칙!

☞ 선지의 일정한 패턴을 통해서 정답의 가능성을 파악하여 문제 풀이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5개의 선지중 하나의 선지가 산술적인 정답의 확률은 20%이지만 **선지의 내용 중 전체 혹은 그 일부라도 서로 반대(대립, 모순, 부정)의 맥락을 이루면 그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지의 정답 확률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부정형 발문에서 자주 적용됨)

- 1대1 대립 (두 개의 선지 중 하나: 70% 이상)
- 1대2 대립 (1의 비율 선지: 80% 이상)
- 1대3 대립 (1의 비율 선지: 90% 이상)

*위 문제는 남편의 의지(뜻)에 대해 ②은 긍정적 ⇔ ③은 부정적으로 선지가 1대1 대립을 이룬다.

- ②~ '남편' 은~자신의 뜻을 반영하였다.(긍정)
 - ③~ '남편' 의 의지가 좌절된 사건을 의미한다. (부정)
- ☞(☆실제 정답)

그래서 지문 및 문제와 상관없이 ②와 ③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이상이다.

▶출제자는 정답 선지를 먼저 만들고 그 항목 중 일부를 부정, 대립, 반대의 맥락을 통해 오답 선지를 만드는 심리가 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이 중에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높다. 이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다르다! 문제를 풀 다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선지가 보인다면 다른 선지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 사소한 팁 하나가 문제 풀이 시간을 절약해 1점 더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보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33. <어휘>

##미친정답률 #보기제시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51 %	11 %	18 %	12 %	51 %	5 %

◆정답 ④

♣지문의 맥락 없이도 <보기>의 핵심 내용만으로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

⇒ <보기>의 핵심은 '원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원칙 없음!)'로 '정해진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④와 가장 관련성을 갖는다.

◆오답 풀이

- ① 모래 위에 쌓은 성=모래 위에 선 누각
⇒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곧 허물어질 수 있는 물건이나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고양이 쥐 사정 보듯=고양이 쥐 생각
⇒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생각해 주는 척함을 이르는 말.
- ③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아무 관계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잘 자랄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 크게 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장래성이 엿보인다는 말.

★<보기>까지 제시된 문제라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마라! 때로는 지문의 내용을 보지 않고도 위와 같이 쉽게 풀린다. 그래서 **만약 시험 시간 부족으로 지문 하나를 제대로 읽어볼 시간이 없다면 보기가 있는 문제만이라도 대략 정답의 감을 잡아보자.**

- 1) 긍정 발문형: <보기>의 핵심과 가장 관련성 있는 선지가 정답!
- 2) 부정 발문형: <보기>의 핵심과 가장 관련성 없는 선지가 정답!

※34~36, 유치진의 <소>

***주제: 일제 강점기 농촌의 가난하고 비참한 현실**

ㄱ.발단-국서는 소를 애지중지하지만 개똥이와 말뚱이는 소를 팔기 원함
 ㄴ.전개-개똥이가 소를 몰래 팔아 만주로 떠날 궁리함
 ㄷ.절정-개똥이가 소를 팔았다고 의심 받고 마름은 국서네의 빚 대신 소를 끌고 감
 ㄹ.하강-국서는 소를 찾으려 하지만 좌절됨
 ㅁ.대단원-말뚱이가 지주네 공간에 불을 지르고 주재소에 붙잡혀 감

34. <극문학>

#사전적의미 #인물 #똥이형제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5 %	85 %	3 %	4 %	4 %	2 %

◆정답 ①

*‘말뚱이’는 ‘개똥이’와 ‘국서’사이를 **이간질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 1) 국서: (말뚱이더러 노하여) 이놈아 나가거라! 소는 그예 너놈 때문에 날려 버리고 말았다! 이 빌어먹을 놈! 왜 아까 마름한테는 덤뻐어? →(말뚱이를 질책)
- 2) 처:이 놈아, 너는 허는 짓짓이 미련스럽더라. 이 일을 어떡하나? 이 일을. →(말뚱이를 질책)
- 3) 말뚱이: 아니야, 가만 있어. 내 소 팔어먹은 놈은 알어요. 저 그 쇠똥치란 소장수가 어떻게 생겼수?

⇒ ‘말뚱이’의 행위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선 한 이간질이라기 보단 일단 국서와 처의 질책1~2)에서 벗어나 집안을 분노하게 한 소를 판 범인을 찾기위한 행위이다.

*<이간질>은 의도성을 지니고 중간에서 다른 두 사람의 사이를 서로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 A: 같은 을과 병을 서로 멀어지게 할 목적으로 을의 나쁜 과거를 병에게 이야기 했다.
- B: 을의 물음 때문에 같은 병의 나쁜 과거를 을에게 이야기 했다.

☞ A의 같은 을과 병이 서로 멀어지길 바라는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이간질에 해당하고 B의 같은 을의 물음에 단지 답변만을 했을 뿐 설령, 을과 같이 멀어지더라도 그런 의도성이 처음에는 없었기에 이간질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②
- *‘국서’와 ‘개똥이’의 ‘마름’에 대한 언행을 살펴보면,
- 1) 말뚱이: (옆에서 듣고 섰다가 통명스럽게)그걸 어째야 한단 말요? →(하소연)
 - 2) 말뚱이: 아니 뼈가 빠지게 농사지어 놓은 것 막 다 가져갔죠. 그러구 그게 무슨 말유? 올해가 풍년이래두 우리 집에 어디 쌀 한 톨 남았나 봐요! 막 뒤져 봐요!
→(공격적)
 - 3) 국서: 그러니까 나도 여태 여쭙 게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우리는……→(사정 호소)
 - 4) 마름: 망할 자식 보게. 늙은 사람 앞에 막 삿대질을 허구 이놈이 덤비지! 에이, 고약한 놈 같으니! (지팡이로 때린다.)
 - 4) 국서: (말리다가 못해 말뚱이를 헛간 밖으로 끌어낸다.) 저리 나가! 이놈, 버릇없어!

⇒ 말뚱이는 마름에게 하소연을 넘어서서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공격적인 모습**(삿대질)까지도 보인다. 하지만 국서는 마름에게 **사정을 호소**하는 정도의 대응이며 적극적으로 항거하는 말뚱이를 말리고 있다. **국서와 말뚱이는 부자(父子)관계로 빚을 지고 있다는 이해관계를 공유함**

- ③
- 1) 말뚱이: 인제 알았어요. 아까 개똥이란 녀석이 웬 똥똥허구 젊은 사람을 데리고 왔겠지요. 그래 가지구 이 감낭구 밑에다가 소를 몰아 내놓구 한참 동안이나 뭐라구 쭈근거렸어요. 그리고 나를 보고는 그만 도망을 했어! →**말뚱이의 판단 (개똥이가 소를 팔)**
 - 2) 처: 이놈아. 똑똑이 못 본 일이거든 아예 입에 담지 말어라. 왜 **그놈(개똥이)을 소도적놈** 로 몰라구 그래?
 - 3) 국서:……아냐. **그놈(개똥이)일는지도 몰라.** 4)**그놈(개똥이)이 소 팔어서 만주 보내 달라구** 좀 성화를 부렸어야지.

⇒‘개똥이’의 예전 행동4)을 근거로 ‘말뚱이’의 판단1)에 ‘국서’는 **신빙성이 있다**3)고 생각함.

- ④
- 1) 소장수A:……가만 계세요. 만약 내가 이 **소를 샀다가두 나중에 탄로**가 나면……
 - 2) 개똥이: 멍텅구리 같으니라구! 그런 걱정은 여기서 헛 게 아냐! 자네가 입을 다치구 있구 내가 입을 딱 씻어 버리구 있으면 누가 알아.
 - 3) 이때에 울타리 바깥 행길에 밭에 갔다 오는 말뚱이 나타난다.

- 4) 소장수B: **젊은 머리 깎은 녀석이지. 좀 똥똥허구.**
 5) 말뚱이: **똥똥허구 머리를 깎구……음! 그렇지! 이놈을 내가 죽여 버릴테야.**
 6) 말뚱이: 인제 알았어요. 아까 **개똥이**란 녀석이 웬 **똥똥허구 젊은 사람(소장수A)**을 데리고 왔겠지요. 그래 가지구 이 감낭구 밑에다가 소를 몰아 내놓구 한참 동안이나 뒤라구 쭈근거렸어요. 그리고 나를 보고는 그만 도망을 했어!
- ⇒ ‘소장수B’가 제공한 정보4)에 의지하여5) ‘말뚱이’는 ‘개똥이’가 ‘소장수A’에게 소를 넘겼다1~2)고 믿음.

⑤

*마름: 지금 와서 그런 소릴 해두 소용없다니까! 나는 그저 **눈 입자가 하라는 대로 허는** 사람이야.

⇒ ‘마름’은 도지 갇기를 독촉하는 자신의 행동이 **눈입자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내세워 ‘국서’ 부자의 불만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회피함.

35. <극문학>

#사전적 의미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0 %	6 %	3 %	1 %	8 %	80 %

◆정답 ⑤

- 1) 말뚱이는 소 옆에 와서 좀 ①**이상한 공기**를 예감한 듯이 살핀다. **이상 없음을 보고** 소를 도로 매어 둔다.
 2) 국서: (말리다가 못해 말뚱이를 헛간 밖으로 끌어낸다.)저리 나가! 이놈, 버릇없어!

⇒ ①으로 인해 ‘말뚱이’는 **소의 상태를 확인1)**하고, ②이라는 말을 듣고 ‘국서’는 말뚱이를 끌어내며 ‘마름’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2)하고 있음.

◆오답 풀이

①, ②동시 풀이

- *이때에 울타리 바깥 행길에 밭에 갔다 오는 말뚱이 나타난다. 말뚱이는 빈 지계를 졌다. 1)**개똥이와 소장수**를 보고 무루청한다.
 *이때에 또 국서와 마름이 헛간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난다. 소장수와 개똥이는 슬슬 나가 버린다. 말뚱이는 소 옆에 와서 좀 ①**이상한 공기**를 예감한 듯이 살핀다. 2)**이상 없음을 보고 소를 도로 매어 둔다.**

*마름: 만일 이번에 목은 것을 3)**못 갖다 갖고**면 4)**종지 못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사정없이 딱 잘라서 ②**최후 결단**을 지어 버리고 말 거란 말야!

①
 ⇒마름이 ①의 조치를 취하려는 이유는 **국서네가 빛을 갇지 않을 경우3)** 때문이고 소장수와 개똥이의 수상한 행동1)으로 말뚱이는 ①을 예감한 것뿐이지 ‘말뚱이’와 ‘마름’간에 불화가 생긴 것은 아니다. ‘말뚱이’와 ‘마름’간의 불화는 **국서네 빛3)**으로 인한 것임.

②
 ㉠: ‘소가 없어지지는 않을까2)’하는 소를 둘러싼 불안한 기운!
 ㉡: 빛을 갇지 않을 경우 **국서네에게 피해를 줄 만한 일4)**!

⇒‘말뚱이’는 ①으로 인해 불안하고 예민한 상태에서 마름의 ②과 같은 발언을 공격적으로 대항한다. ‘말뚱이’가 ②을 대비하기 위해 ①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①과 ②은 서로 별개의 사항이며 관계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②은 ②에 대한 ‘말뚱이’의 공격적 반응에 영향을 주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더 간결한 풀이!

② ①은 ‘마름’이 헛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눈치 채고 ‘말뚱이’가 ②을 대비하면서 조성한 것이다. → ‘말뚱이’가 ①**이상한 공기**를 조성(주체가 직접 분위기를 만들!)하다???

⇒이상한 분위기를 직접 만든 주체는 개똥이와 소장수이지 말뚱이가 아니다. 말뚱이는 단지 피동적으로 이상한 분위기를 접한(당한) 것이다. ‘조성’이라는 낱말의 사전적 의미와 문법적 관계를 알면 선지의 나머지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빠르게 정오를 판단할 수 있다.

☆국어는 어휘력은 문법적 감각도 연결되며 문학적 사고 능력까지 이어진다. **기출문제에선 낱말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자!**

③
 *①으로 인해 ‘개똥이’는 ‘말뚱이’에 대한 중요심을, ②으로 인해 ‘마름’은 ‘국서’ 부부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된다.

- 1) 말뚱이: (길에서) 개똥아 너 거기서 뭘 해? 그 사람은 누구야?
 2) 개똥이:……허긴 뭘 해. 아모것도 아니야. 소에 끌 주고 있어……
 3) 소장수와 개똥이는 슬슬 나가 버린다.
 4) 마름: 금명간에 다 해다 갖고란 말야!

⇒개똥이는 **말뚱이의 물음1)**에 당황한 기색으로 대답2)하고 **피할3)**뿐 중요심을 나타내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극에서 인물의 심리 상태는 대부분 말과 행동으로 알 수 있는데 지문에서 개똥

이의 언행 비중이 별로 없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혹시 지문 밖의 내용으로 개똥이가 말뚱이게 증오심을 갖는 부분이 나오더라도 오답!

☆수능은 지문 안의 내용만으로 판단해야한다!

◆출제자는 오답 선지의 단어도 그냥 선택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그 많은 심리 상태 중 ‘증오심’을 선택한 이유는 말뚱이가 마름에게 보이는 심리 상태가 ‘증오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 인물간의 관계를 혼돈한 수험생을 오답으로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마름’이 국서 부부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된 것은 ㉠이 아니라 국서네의 빛4) 때문이고 빛을 안 갖을 경우를 대비해 ㉠의 발언을 한 것이다.

④

- 1) 말뚱이: 아니 빠가 빠지게 농사지어 놓은 것 막 다 가져갔죠.~우리 집에 어디 쌀 한 톨 남았나 봐요! 막 뒤져 봐요! →(공격적)
- 2) 국서: 그러니까 나도 여태 여쭙 게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우리는…… →(사정 호소)
- 3) 마름: 사정없이 딱 잘라서 ㉠**최후 결단**을 지어 버리고 말 거란 말야! 잘 알아 생각해!
- 4) 국서:……이놈 말뚱아! →(여기서부터 갈등 시작!!!)

⇒‘국서’와 ‘말뚱이’가 갈등이 시작된 직접적인 이유는 ㉠이 아닌 마름을 대하는 서로의 입장차이1~2) 때문이다. ㉠은 단지 말뚱이가 특정한 심리 상태를 갖게 하는 원인일 뿐이다. 그리고 갈등의 고조는 갈등이 이미 시작된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다.

(※갈등의 원인 ⇒ 갈등의 시작 ⇒ 갈등의 고조)

㉠은 말뚱이를 더욱 자극해 입장차이의 심화를 가져왔을 뿐이고 그 이후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지 갈등이 ㉠이전에 시작되어 ㉠이후에 고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흔한 문제 풀이 팁!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의 선지에서 부적절한 것을 먼저 발견하면 나머지 부분을 읽지 않고 과감히 넘어가자! 불만하다고 나머지도 확인 하는 순간, 시험 시간 손해이다! 수능 국어는 경제적인 시간 투자가 실력의 반영을 명심하자!

① ㉠으로 인해 생긴 ‘말뚱이’와 ‘마름’간의 불화 때문에(☞부적절) ‘마름’이 ㉠과 같은 조치를 취하려 한다. (☞볼 필요 없다!)

③ ㉠으로 인해 ‘개똥이’는 ‘말뚱이’에 대한 증오심을(☞부적절), ㉠으로 인해 ‘마름’은 ‘국서’ 부부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된다.

④ ㉠으로 인해 ‘국서’와 ‘말뚱이’사이의 갈등이 시작되고(☞부적절), ㉠으로 인해 ‘국서’와 ‘말뚱이’사이의 갈등이 고조된다.(☞볼 필요 없다!)

36. <극문학>

#보기 제시 #감상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6 %	2 %	1 %	4 %	4 %	86 %

◆정답 ㉠

*마름: 이 망할 자식 보게. 1)늙은 사람 앞에 막 샷대질을 허구 이놈이 덤비지! 예잇, 고약한 놈 같으니! (지팡이로 때린 다.)

*말뚱이: 그래 가지구 이 감낭구 밑에다가 소를 몰아 내놓구 한참 동안이나 뭐라구 쭈근거렸어요. 그리고 2)나를 보고는 그만 도망을 했어!

⇒1)은 나이도 어린 말뚱이가 상위 계층인 마름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계층 간 위계 관계를 중시하는 당대 농촌 사회의 관습을 보여줄 여지가 있지만 2)는 그렇지 않다. 2)는 단순히 형제끼리 의심을 하며 하는 대사일 뿐이다.

◆오답 풀이

①

<보기>: 사실주의 극은 다양한 연극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대 공간을 현실의 일부인 것처럼 꾸민다.

⇒‘쇼’, ‘울타리’, ‘빈 지게’, ‘헛간’ 등은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으므로 연극적 장치로 사용하면 무대가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음.

②

1) 말뚱이:(악을 쓰고) ……아버지 좀 봐요. 노……농지령이란 건 뭐야요? 그저 사람을 골털려구! 최후 결단을 하면 어쩔 테야요? 어디 할 대루 해 봐요! 흥! 할래야 할 거나 있어야 말이지……

2) 국서:(말리다가 못해 말뚱이를 헛간 밖으로 끌어낸다.)저리 나가! 이놈, 버릇없어!

⇒말뚱이와 국서는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행동과 생동감 있는 구어체의 말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마름을 대하는 입장 차이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실감나게 제시되어 있음.

※구어체와 문어체(문장체)에 대해 알아보자~!

ㄱ. 구어체: 입으로 하는 말로 일상 대화에서 흔히 쓰는 말투로
졸임말이나 개인적인 말투 등은 모두 구어체에 해당한다.

☞(크 문학은 지문 빼고 모두 구어체라 볼 수 있음)

ㄴ. 문어체(문장체): 글로 하는 말로 구어체를 좀 더 객관화 혹은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춘채 표현하고 볼 수 있다.

☞(공문서나 설명문은 반드시 문어체로 써야함)

*원소리야? 난 이거랑 저거를 가져간다! →구어체

*(무슨 소리야? 난 이것과 저것을 가져간다! →문어체

③

- 1) 마름 앞서고 그 뒤에 국서, 그리고 그 처 헛간으로 들어온다.
- 2) 마름:.....그러면 저 벗섬은 오늘 저녁나절까지 신작로 둘다
리계에 있는 **논입자 곳간**으로져 **내어다 두게**.
- 3)국서: 네.

⇒‘마름’의 뒤를 따라가는 ‘국서’의 행동1)과 ‘국서’에게 지시하는 ‘마름’의 행동2)을 통해 농촌 사회의 계층 간 위계 관계3)(→마름의 지시에 순순히 응함)를 보여 주고 있음

*마름: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
*소작농: 토지를 지주로부터 빌려서 경작하는 사람

♣**마름과 소작농이 문학에 등장하면 대부분 계층간의 갈등이 있음을 생각하자!**

④

- 1) 마름: 명년부터서는 새로 **농지령**(농지에 관한 법령)이란 게 실시된단구.그런 게 되면 실상 **작인**(토지를 지주로부터 빌려서 경작하는 사람)들은 살기가 좀 나아져.~**도지**(빌려서 경작한 땅)가 묵었느니, 떨어졌느니 허구 법정에 내걸더라도 말썽스럽게 되거든!

*<보기>: 사실주의 극은 다양한 연극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대 공간을 **현실의 일부인 것처럼** 꾸민다.

⇒‘농지령’, ‘작인’, ‘도지’ 등 농민과 관련된 법령 및 용어를 사용하여 무대 위의 상황이 당대의 농촌 **현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줌.

※37~39, <토끼전>

*주제: **허욕에 대한 경계와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의 중요성**

- ㄱ.발단-자라가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 욕지로 나감
- ㄴ.전개-수궁에 가면 높은 벼슬을 주겠다는 자라의 말에 속아 토끼가 수궁에 들어옴
- ㄷ.절정-토끼는 간을 욕지에 두고 왔다가 다시 욕지로 나오려.결말-토끼는 도망치고 자라는 허탈해함

37. <고전소설>

#전체 이해 #별주부 미친 용기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79 %	79 %	4 %	5 %	3 %	6 %

◆정답 ①

- 1) ‘왕명을 받들어 만 리 밖에 나와 이 지경을 당하니 **한 번 죽지 두 번 죽음은 없는지라**. 먹지 않는 것 없이 몽땅 먹는다 하니 내 한번 **고기 값이나 하리라**.’ 하고 모진 마음을 굳게 먹고
- 2) 하며 **호랑이 앞턱을 냅다 물고 매어 달리니**,

⇒별주부가 호랑이 앞에서 **고기 값이나 하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1)**하고 **상대에 맞서겠다**는 의지2)를 드러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비장한 각오로 호랑이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아 상대와 싸우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오답 풀이

②

*“이크, 장사 **1)갑주 속의 방망이 총** 나온다.”하며 **2)저만치 물러앉으니, 자라 호랑이 질러 하는 김새**를 알고

⇒호랑이가 별주부의 외양에서 떠올린 **갑주와 방망이 총1)**은 상대와 맞설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질려하며 저만치 물러앉아2)** 있다.

③

1)“**내 재주 아니런들 도로랑 귀신 피할손가?** 하마터면 죽을 뻔 하였구나.”

⇒ 별주부에게 패한 뒤 **자기 재주를 장담1)**하는 것은 패배를 설욕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허세를 통한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 **패배를 설욕(부끄러움을 씻음)할 의지**라면 자기 재주를 장담한 이후에 **상대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차후 공격할 마음(복수심)이 있어야 한다**.

④

*'어떤 게 간이라고? 뱃속에 물풍이 들어 출렁거리는 걸 간이라 하겠다. 아뵘싸, 1)김새를 보아 떠나라고 하였거니 2)즉시 가는 것만 못할지.'→(상황을 보아 즉시 가야겠다고 판단)

⇒ 토끼가 김새를 보아 떠나라는 말을 떠올리고 1) 즉시 가야겠다고 2)고 생각하는 것은 용왕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의지가 아니라 반대로 용왕의 믿음을 배신하고 도망하겠다는 의지이다. 지문에는 용왕의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변화지 않는 토끼전의 기본 줄거리(용왕은 토끼의 간을 원함→토끼는 간을 주겠다고 약속→배신하고 수궁을 탈출)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

♣ 발문에 따른 정답 근거 찾기!

i.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 반드시 지문을 통해서만 정답을 판단! 지문에 제시되지 않은 배경지식을 통해 정답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배경지식은 맞지만 지문에 없기에 오답이 되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해야한다.

ii.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지문 외의 배경 지식 활용이 i 보다는 유연하지만 먼저 지문을 통해 정답 근거를 찾아보고 이후에 자신의 배경지식을 더해보자는 생각으로 정답에 접근하자.

⑤

1) "내 일시 경솔한 말로 음해를 만나 무죄한 부인을 이 지경에 당하게 하였거니와 천 리를 함께 온 정이 적지 아니하고 제 마음이 악독하여 고집스럽지 않으니 2)우리 정성을 다하여 빌면 다시 측은히 생각하여 (우리들) 구해 주리라."

⇒ 별주부가 부인이 대신 죽게 된 것을 자신의 경솔한 말과 음해 때문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별주부와 부인)가 살겠다는 것2)이지 아내 대신 별주부가 죽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은 아니다.

★ 대단히 유용한 팁 ★

♣ 공통 선지의 법칙!

☞ 5개의 선지중 하나의 선지가 산술적인 정답의 확률은 20%이지만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최선 긍정 발문형 문제에서 선지의 내용 중 최대 공통점(맞은 꼴)의 한 쌍이 존재하는 경우 그 둘 중 하나의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약 70%이다.

위 문제의 선지 ①, ②는 상대와 맞설 의지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다.

①~상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실제 정답)
②~상대와 맞설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문과 문제에 상관 없이 ①, ②중에서 답이 있을 가능성은 약 70%이다.

▶ 출제자는 정답을 먼저 만들고 이와 유사한 매력 오답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정답을 닮은 매력 오답이 나올 때가 있다. 수험생은 이를 역이용해 닮은 꼴 선지쌍의 정답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다르다! 문제를 풀 다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선지가 보인다면 다른 선지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 사소한 팁 하나가 문제 풀이 시간을 절약해 1점 더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보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38. <고전 소설>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 #㉠~㉤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5 %	1 %	6 %	2 %	2 %	85 %

◆정답 ⑤

* ㉠즉시 1)별당을 깨끗이 치우고 2)잔치를 배설하여 3)토끼를 정으로 칭하여 4)상좌에 앉히고 5)별주부 내외 당하에 꿇어 6)백배 애걸하는 말이~

⇒ 1)~6)은 모두 객관적 행위일 뿐이지 편집자적 논평도 아니고 서술자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

☞ 작가의 사상이나 지식 등을 적당히 배합시켜 인물의 감정 상태를 분석하고 행동 및 심리적 변화의 의미까지 해석하는 것으로 고전 소설에서 흔히 찾을 수 있다. →(느낌표가 있어 감정이 드러나면 편집자적 논평일 가능성이 높다)

[지문 변형] 즉시 별당을 깨끗이 치우고 잔치를 배설하여 토끼를 정으로 칭하여 상좌에 앉히고 별주부 내외 당하에 꿇어 백배 애걸한다. 별주부 내외 참으로 곤란하겠구나! 곤란하겠어! (→ 편집자적 논평)

※ 전지적 작가 시점

☞ 작가가 등장인물의 행동과 태도는 물론 그의 내면세계까지도 분석 설명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인물의 내면을 설명 및 해석한다는 점에서 편집자적 논평과 유사하다.

◆오답 풀이

①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병든 용왕 못 보겠네. 나의 충성 부족던가, 나의 정성 부족던가? 2)객사(객지에서 죽음) 신세 자라 팔자, 이 아니 불쌍한가?

⇒ ㉠은 유사한 어구의 반복과 대구1)를 통해 죽을 수도 있는 신세를 한탄2)하는 인물의 심경을 드러냄.

※열거, 반복, 대구에 대해 알아보자!

ㄱ. 열거 (나열): 비슷한 말을 늘어 놓음. (딸기,포도,사과는 과일의 종류이다)

ㄴ. 반복: 동일한 말은 연속적으로 사용. (눈,눈,눈이 내린다!) ☞운율 형성!

ㄷ. 대구: 문장의 동일한 구조를 짝지어 줌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운율 형성!

②

㉠우리 수궁이 퇴락하여 새로 다시 지은 후에 천여 개 기와를 내 손으로 이어갈 제, 추녀 끝에 돌아가다 한 발길 미끄러져 공중에서 1)뚝(→의성어 혹은 의태어) 떨어져 2)빙빙(의태어) 돌아 내려오다 목으로 3)쩨쩨(의성어) 내려 박혀 목이 이리 되었기로 명의더러 물어보니 호랑이 쓸개가 약이 된다 하기에 벽력 장군 앞세우고 도로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 나왔으니 게가 호랑이면 쓸개 한 보 못 주겠나

1) 뚝: 큰 물체나 물방울 따위가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의성어 혹은 의태어

2) 빙빙:약간 넓은 일정한 범위를 자꾸 도는 모양 ☞의태어

3) 찼쩨(쩨꺼덕): 크고 단단한 물체가 맞부딪치는 소리 ☞의성어 (◆한 단어가 의성어 혹은 의태어로도 사용될 수 있음에 주의!)

⇒ ㉠에 의성어뿐만 아니라 의태어도 있기 때문에 의태어를 활용하여~보여주고 있다는 ㉡는 적절하다. 의태어를 활용한다고 해서 '의태어만(의성어가 빠진)'을 생각해서는 안된다!

*㉠에 대한 변형된 선지는 다음과 같이 적절성이 판정된다.

- i 의태어를 활용하여~보여주고 있다 (적절!)
- ii 의성어를 활용하여~보여주고 있다 (적절!)
- iii 의태어와 의성어를 활용하여~보여주고 있다 (적절!)
- iv 의태어만을 활용하여~보여주고 있다 (부적절!)
- v 의태어만을 활용하여~보여주고 있다 (부적절!)

③

1)어서 급히 빨리 나와 용천검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도로랑!

㉡2)초나라 노랫소리에 놀란 폐왕 포위 뚫고 남쪽으로 달아나듯, 3)적벽강 불 싸움에 폐군장 위왕 조조 정옥 따라 도망하듯, 4)북풍에 구름 단듯, 5)편진살 달아나듯, 6)왜물 조총 철환 단듯, 녹수를 얼른 건너 동쪽 숲을 헤치면서 쭈루쭈루 달아나

⇒ ㉡:동일 행위에 대한 다양한 묘사2~6)를 통해 대상이 처한 긴박한 상황1)인 자라의 위협을 역동적(달아나는 움직임)으로 보여 줌.

④

㉢1)옛 말씀에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고 높이 뜬 새 없어도 좋은 활이 숨는다.’ 하였사오니 2)선생 말씀이 옳사오나 주부는 만리타국의 정성을 다하여 공을 이루고 왔삽거늘 제후로 봉하기는 고사하고 죽이는 것은 이웃나라가 알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나이다.

⇒ ㉢:고사를 활용1)하여 상대에게 화자의 의견을 전달2)함.

▶고사를 활용하면 한자로 된 사자성어만 생각하는데 고사의 ‘고’자가 옛 말씀의 ‘옛’에 대응됨을 알아두자!

39. <고전소설>

#감상 #보기 제시 #3점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1 %	2 %	7 %	81 %	3 %	4 %

◆정답 ③

*한창 이리 춤을 출 제, 대장 범치 토끼 옆에 섰다가, “이크, 1) 토끼 뺨속에 간이 출랑출랑하는구나.”

*이리할 제 별주부 잔치에 참여하였다가 2)눈을 부릅떠 토끼를 보며 가만히 꾸짖어 왈, “내 듣기에도 3)출랑출랑하는 것이 분명한 간인 듯하거든 네 저러한 피로 우리 대왕을 속이려 하느냐?”4)토끼 마음에 분하여 잔치가 끝난 후 왕께 아뢰어,

<보기>: 인물들은 상대가 모르거나 상대에게 5)불리한 화제로 대화를 이끄는 것 같은 방법을 통해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며, 불리한 국면에서는 제삼자를 끌어들이거나 대결을 회피하기도 한다.

⇒별주부는 범치가 토끼의 간에 대해 말한 바1)를 가지고 토끼를 회유하여 토끼와의 대결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끼를 꾸짖으면서2) 토끼를 불리한 화제3)로 이끌어 대결에서 우위5)를 점하려 한다. 그래서 이후 토끼는 분하게4)된다.

◆오답 풀이

①

- 1)“어따, 내가 내 근본을 알려느냐?”
- 2)“그대가 내 근본을 자세히 아는가? 나는 수국충신 간의대부 겸 시랑 별주부, 별나라라 하네.”
- 3)호랑이 무식하여 자라 별자 못 알아듣고 무수히 새겨
- 4)“이곳 나오고 목이 이리 된 근본을 알려나?”

<보기> 인물들은 상대가 모르거나 상대에게 불리한 화제로 대화를 이끄는 것 같은 방법을 통해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며

⇒별주부는 호랑이가 모르는 별주부 자신의 근본(1~4)으로 화제를 이끌어 자신의 우위를 확보함.

②

- 1) “그대가 내 근본을 자세히 아는가? 나는 수국충신 간의대부 겸 시랑 별주부, **별나라라** 하네.”
- 2) 호랑이 무식하여 자라 별자 못 알아듣고 무수히 새겨,“별나라, 별나라, 그저 나라도 무섭다 하되 별나라 더 무섭다.
- 3) 어서 급히 빨리 나와 용천검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도로랑!**”하고 달려드니 호랑이 깜짝 놀라 물똥을 와락 싸고,

⇒호랑이는 별나라에 대한 자신의 무지(1~2)를 드러내어 별주부에게 자신(호랑이)을 공략할 빌미를 제공(3)함.

④

- 1) 이리할 제 별주부 잔치에 참여하였다가 눈을 부릅떠 토끼를 보며 가만히 꾸짖어 왈, “내 듣기에도 출랑출랑하는 것이 분명한 간인 듯하거든 네 저러한 꾀로 우리 대왕을 속이려 하느냐?” →(화제: 토끼의 잘못)
- 2) 토끼 마음에 분하여 잔치가 끝난 후 왕께 아뢰어, “소토 세상에서 약간 의서를 보았거니와 음허화동(陰虛火動)으로 난 병에 원기 회복하기는 왕배탕이 제일 좋다 하오니 왕배는 곧 자라라, 오래 묵은 자라를 구하여 쓰면 기운이 자연 회복할 것이요, 그 다음에 소토의 간을 쓰면 병세 며칠 안으로 나으리다.” →(화제: 자라가 원기 회복에 좋음)

<보기>: 3)불리한 국면에서는 **제삼자를 끌어들이거나** 대결을 회피하기도 한다.

⇒토끼는 용왕의 병과 관련하여 자신으로부터 별주부로 화제를 옮긴(1→2)으로써 불리한 상황(3)을 벗어나려 함.

⑤

*토끼 수업을 만지작거리며 웃어 왈,“1)네 당초에 **날 죽을 곳으로 유인함**도 마음에 고이하게들 하물며 없는 간을 있다 하여 기어이 죽이려 함은 무슨 일이며, 위태한 때에 이르러 애걸하는 것은 나를 조롱함이나?”

<보기>: 인물들은 상대가 모르거나 상대에게 불리한 화제로 대화를 이끄는 것 같은 방법을 통해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며

⇒토끼는 별주부가 자신을 유인했던 과거(1)의 일을 화제로 끌어 들여 자신의 우위를 강화함.

◆지문과 관련된 배경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다.

☞지문의 밑줄 친 1)은 별주부가 토끼를 부귀영화를 약속하며 수궁으로 유인한 것으로 이는 지문에는 없지만 토끼전의 기본 줄거리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토끼전처럼 유명한 고전 작품일 경우에만 이와 같고 보통은 제시된 지문으로만 문제를 풀게 되어 있음)

※40~42

정인지 의 <용비어천가>

*주제: 조선 개국의 정당성과 후대 왕에 대한 권계

제2장- 조선 왕조의 번성과 무궁한 발전 기원

제125장- 후대 왕에 대한 권계

맹사성, <강호사시가>

*주제: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삶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제1수-봄의 흥취 있는 삶

제2수-여름의 한가한 삶

제3수-가을의 유유자적하는 삶

제4수-겨울의 안분자족하는 삶

※현대어 풀이

<용비어천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이 좋고 열매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므로 냇물을 이루어 바다에 가나니

[2장]

*천 년 전에 미리 정해 놓은 한양에 나라를 세워도 복이 끝이 없으니
 *후대 왕이 이어 나가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섬겨야 더욱 굳건해
 지리라
 *임금이시여 아소서 (나라는 돌보지 않고) 낙수에 사냥을 가서 조상
 의 공덕만 믿으시겠습니까? [125장]

<강호 사시가>

강호에 봄이 오니 절로 흥이 돌는구나.
 막걸리 냇가에 앉아 먹는데 금린어(쏘가리) 안주 삼고
 이 몸이 한가히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구나 [1수]

강호에 여름이 오니 초당에 일이 없다.
 미더운 강의 파도는 바람을 보내나니
 이 몸이 시원하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구나 [2수]

강호에 가을이 오니 고기마다 살이 오르는구나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띄워 던져놓고
 이 몸이 소일하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구나 [3수]

강호에 겨울이 오니 눈 깊이가 한 자가 넘구나
 샷갓을 비스듬히 쓰고 누역으로 옷을 지어
 이 몸이 춥지 않음도 역시 임금의 은혜구나 [4수]

40. <고전사>

#자연의이치 #종결어미 #순우리말 #자연과인간의대조 #1항목
 후순위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8 %	3 %	1 %	4 %	2 %	88 %

◆정답 ⑤

<2장> ⇒ 자연 현상만 있다!
 <125장> ⇒ 인간의 삶만 있다! (한강, 낙수는 자연의 일부일 뿐
 자연 현상은 아님)

그래서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 준다는 ⑤는
 적절하지 않다. <2장>의 경우 자연 현상을 통해 인간의 삶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서로 대조되는 모습은 없다.

▶문학 작품에서 혼한 자연 현상과 인간 삶의 대조는 부정적인
인간의 삶 ↔ 긍정적 자연 현상의 형태로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교훈 및 깨달음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번덕이 심한 인간이 한
 곳에 변함없이 위치해 있는 나무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1)뿌리 깊은 나무는 2)바람에 아니 뭘새 3)꽃 좋고 열매 많나니
 4)샘이 깊은 물은 5)가뭇에 아니 그칠새 6)내가 일어 바다에 가
 나니

⇒ 근원이 깊다면1,4) 시련에 흔들리지 않고2,5) 영원히 번성한
 다3,6)는 자연의 이치가 유사하다.

②

1)가없으시+니 2) 굳으시리이+다 3) 밋짖+습니까

⇒각각의 종결어미가 -니, -다, -습니까로 다르다.

◆ 혹시나해서~

지문의 <125장>이 5줄로 되어있어서 총 5행 구성으로 착각하면
 안된다. 원래 3줄인 3행을 편집 때문에 5줄이 된 것이다. **종결
 어미의 정확한 개념을 몰라도 끝부분이 서로 똑같지 않은 것만
 으로도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

※더 자세히 분석하면

- 1) 가없(어간) +으시(높임 선어말어미) +니(종결어미)
- 2) 굳(어간) 으시(높임 선어말어미) +리(미래 선어말 어미) 이
 (서술격 조사) 다 (종결어미)
- 3) 밋(어간)짖(미래 선어말어미) +습니까(종결어미)

※종결 어미에 대해 알아보자!

- ㄱ. **평서형** 종결 어미: -다, -네, -오, -버니다. -느니라, -렸
 다, -마...
- ㄴ. **의문형** 종결 어미: -느냐, -니, -나, -버니까, -까..
- ㄷ.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 -군, -로구나, -어라/-아라(형용
 사에서)...
- ㄹ. **명령형** 종결 어미: -어라/-아라, -려무나, -어/-아..
- ㅁ. **청유형** 종결 어미: -자, -세...

평서: ☞(꽃이 예쁘다.) / 의문: ☞(꽃이 예쁘니?)
 감탄: ☞(꽃이 예쁘구나!) / 명령: ☞(철수야, 밥 먹어라.)
 청유: ☞(철수야, 밥 먹자.)

③ ⇒<2장>, <125장> 둘 다 청자를 염두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 곧, 수신자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125장>만이다. 임금+하(높임 호격 조사)라고 임금을
 부르고 임금께 노래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2장>은
 명시된 수신자는 없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호격조사!** 더 알아보자!

<호격 조사: -아(낮춤) vs -하(높임)>

☞-하(높임)는 현대에서 사용하지 않는 고전 문법이며 현대는 -
 아(낮춤)만 사용하면 일상적인 상황에서 높임의 대상에게는

호격조사가 사용되지 않는다.

(*호격 조사가 있어 누구를 부르고 그 누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함)

④ ⇒ <125장>에는 한글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는 표현으로 보아 한자는 분명히 쓰였고 <2장>표면적으로 한자가 없고 순우리말뿐이다.

★1항목 후순위의 법칙

☞문제의 지문 혹은 제시문이 (가), (나), (다) 등의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고 선지에서는 그 항목을 1개 혹은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다. 이때 **<항목을 1개만 가져와 설명하는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항목을 2개 이상 가져와 설명하는 선지>보다 는 많이 낮은 편이다.**

위 문제의 경우 선지 ①, ②가 각각 (제2장) 혹은 (제125장) 1개만을 활용하여 설명하는데 다른 선지보다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낮다. 이를 염두하고 항목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 선지 ③~⑤를 먼저 더욱 집중해서 보는 것은 정답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날 수 있는 풀이법이다.

“위와 같은 문제만이라도 선지를 꼭 ①에서 ⑤의 순서대로 봐야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자. **작은 습관의 변화가 정답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능 국어의 생명인 문제 풀이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41. <고전시가>

#계절적 배경 #구체적 사물을 통해 #자연배경 #전체적 통일성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56 %	3 %	56 %	1 %	37 %	1 %

◆정답 ②

ㄱ. 각 수 초장의 전반부에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1수-봄, 2수-여름, 3수-가을, 4수-겨울)하며 시상의 단서를 드러내야겠군. ✖(적절 함)

▶계절적 배경은 위처럼 직접적인 어휘로 금방 알 수 있지만 (봄-새싹, 여름-매미, 가을-낙엽, 겨울-눈) 등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다.

ㄴ. 각 수 초장의 후반부에서는 내면적 감흥을 구체적 사물을 통해 표현해야겠군. ✖(X)

⇒2~4수 후반부에 각각 초당, 고기, 눈이라는 구체적 사물이 있고 이를 통해 감흥을 나타내야 한다고 봐야겠다. 감흥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아 추론하여 따져봐야겠지만 그 전에 1수

후반부에는 미친 흥이 절로 난다며 구체적 사물은 없이 감흥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ㄴ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수부터 부적절함을 판단했으면 나머지 2~4수는 볼 필요가 없다! **신속한 판단으로 시간을 절약하여 다른 어려운 문제 풀이에 사용하자.**

ㄷ. 각 수 중장에서는 주변의 자연 풍광(1,2수:O, 3,4수:X)을 묘사하여 내가 즐기고 있는 삶의 모습을 제시해야겠군. ✖(X)

⇒자연 풍광은 1,2수에만 있고 3,4수에 없다.

*1수- 탁료계변에 금란어(시냇가의 물고기).

*2수- 강과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ㄹ. 각 수 중장의 마지막 어절에는 동일한 시어(이 몸이~하음도 역군은 이샷다)를 배치하여 전체적 통일성을 확보해야겠군.

✖(적절 함)

42. <고전시가>

#일탈 선지(긍-부정) #3점 #감상 #보기 제시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3 %	2 %	3 %	3 %	83 %	7 %

◆정답 ④

⇒(나)에서는 화자는 바람을 맞으며 강위에서 그물을 실은 소정(작은배)을 타고 있으므로 자연물과 인공물의 대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조화에 가깝다. 그리고 화자가 고쳐하는 등의 부정적 심리 상태를 갖는 것은 ‘시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화자는 삶을 편안하게 즐기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뿌리: 식물의 밑동으로서 보통 땅속에 묻혀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줄기를 지탱하는 작용을 하는 기관.

*샘: 물이 땅에서 솟아 나오는 곳.

☞(뿌리와 샘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들이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는 근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음)

그래서 뿌리 혹은 샘이 깊다는 표현은 기반이 굳건하고 유구하다는 비유적 의미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보기>에서 제시된 정치적 목적 중 왕조에 대한 송축과 관련지을 수 있다.

② ⇒경천근민(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함)의 덕목으로 왕의 권위는 적절하며 관직 수행의 임무와 관련성이 있기에 '대부'로서의 정치적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보기>: 사대부들은 1)수신(修身)을 임무로 하는 사(士)와 2)관직 수행을 임무로 하는 대부(大夫), 즉 선비와 신하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보기> 2)의 관직은 '공무원 또는 관리가 국가(왕)로부터 위임받은 일정한 직무나 직책'으로 왕은 곧 국가이기 때문에 관직을 수행하는 임무는 신하로서의 대부에 해당한다. 그래서 개인적 삶도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관련지은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⑤ ⇒(가)의 한강 북녘에 누인개국(어진 일을 쌓고 나라를 연다)한다는 것으로 보아 새 왕조의 터전(한강 북녘)이라는 정치(나라를 다스림)적 의미를 지니고, (나)의 '강호'는 개인적(자연을 즐기며 살아감), 정치적(임금과 관련)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음

★대단히 유용한 팁★

♣일탈 선지의 법칙!

☞ 5개의 선지중 하나의 선지가 산술적인 정답의 확률은 20%이지만 특정한 기준으로 선지의 핵심을 분류했을 때 나머지와 다른 한 개의 선지가 눈에 띄면 이를 일탈 선지라 칭하고 그것이 정답이 될 확률은 약 80%이다. ☞(주로 선지의 핵심을 긍정-부정으로 구분)

*④번 선지가 좀 튀는 이유, 그리고 높은 정답의 가능성!

④이 눈에 띄는 이유는 ④번만이 심리 상태(고뇌)를 나타내는 말이 유일하고 그것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선지의 핵심 혹은 그와 관련된 상황, 판단, 해석 등을 긍정적-부정적으로 구분하면,

① (가)에서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은 기반이 굳건하고 기원이 유구하다는 뜻을 내세워 왕조를 숭축하는 표현이겠군.

☞(긍정적)

② (가)에서 '경천근민'의 덕목을 부각하여 왕에 대해 관계한 것은 '대부'로서의 정치적 의식을 드러낸 것이군.

☞(긍정적)에 가까움

③ (나)에서 '한가'하게 '소일'하는 개인적 삶도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표현한 데서 정치적 성격을 엿볼 수 있군. ☞(긍정적)에 가까움

④ (나)에서 '강파', '바람' 등의 자연물과 '소정', '그물' 등의 인공물의 대립은 사'와 '대부'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부정적) (☆실제 정답)

⑤ (가)의 '한강 북녘'은 새 왕조의 터전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나)의 '강호'는 개인적, 정치적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겠군.

☞(긍정적)

⇒④만이 나머지와 다르게 부정적 이미지이므로 ④는 일탈 선지이며 지문과 발문에 상관없이 정답이 될 확률은 80%이다.

▶매우 주관적인 문학 문제를 객관식의 뚜렷한 정답을 설정하려다 보니 위와 같은 일탈 선지가 나오는 때가 있다. 이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다르다! 문제를 풀다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선지가 보인다면 다른 선지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 사소한 팁 하나가 문제 풀이 시간을 절약해 1점 더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보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43~45

박남수, <아침 이미지1>

*주제: 밝고 생동감 넘치는 아침 이미지에 대한 경의감

1-2행: 어둠이 걷히면서 점차 온갖 물상이 드러남

3-5행: 아침이 되자 어둠이 사라짐

6-10행: 아침이 되자 활기차게 움직이는 물상들의 모습

11-12행: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은 아침 이미지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주제: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

1-5행: 텔레비전을 끄고 풀벌레 소리를 들음

6-12행: 작은 풀벌레들의 소리를 생각함

13-20행: 풀벌레 소리를 듣지 못했던 자신을 성찰함

20-23행: 풀벌레 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임

43. <현대시>

#1 항목후순위 #시어설명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4 %	2 %	1 %	4 %	5 %	84 %

◆정답 ⑤

(가) *어둠은 새~낳는다 →(어둠의 생산력)

*아침(밝음)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밝음에게)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순응)한다. →(어둠이 밝음에 순응)

(나) *폴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들어온다 →(소리와 어둠의 동행)

*어둠 속에서 들으니~ →(동행 이후 소리가 어둠 안에 있음)
↳ 어둠의 포용력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을, (나)에서는 '어둠'의 포용력을 앞세우고 있지만,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은 (가)에만 있고 (나)에는 없다.

♣보충 해설!

(나) *어둠 속에서 들으니~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어둠과 밝음의 조화)에 가까움

*허파(몸 안에 있기에 주변이 어두움)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허파 주변의 어둠이 별빛으로 인해 일부 사라지긴 하지만 '어둠이 밝음에 순응' 하는 모습으로 보기엔 무리함)

*순응: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하여 익숙하여지거나 체계, 명령 따위에 적응하여 따름'

→('적응'이나 '익숙'은 일회성이 아닌 그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함을 전제!)

*순응이나? 아니냐?

(가): 밤의 어둠과 아침의 밝음의 순환, 지속성 ⇔(순응과 연결 가능)

(나): 어두운 허파 주변의 밝은 별빛이 들어옴
⇔(일회성, 순응과 연결해 보기 어려움)

▶보통 어둠하면 부정적 이미지인데 (가)에서는 생산력을 나타내는 긍정적 이미지이다. 대부분이 그러하니 그럴것이라고 선판 단하지 말고 문맥을 통해 정확히 따져보자!

◆오답 풀이

①

(가) 어둠은(주어) 온갖 물상(物象)을(목적어) 돌려주지만(서술어)

⇒주체는 서술어의 주어가 되므로 돌려주다의 주어는 '어둠'이기 때문에 ①은 적절하다.

▶문학 문제이지만 아주 쉬운 문법 지식으로 충분히 풀이 가능함.

②

(나)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더 낭랑(소리가 맑고 또랑또랑)하다.

⇒ 어둠과 별빛은 폴벌레 소리가 나는 배경인데 이 배경으로 인해 소리가 더 낭랑하기 때문에 ②는 적절하다.

▶(밤이 낮보다 소리가 잘 들리다는 배경지식이 연관됨)

③

(가) 아침이면, 어둠은~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어둠'이 사라져 감)

(나)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조금은 환해질 뿐 대부분은 어두움)
↳('어둠'이 지속됨)

④

(가)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며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어둠이 물러나면서 어둠에게 간혀있던 물상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상황이 변화함)

(나) 텔레비전을 끄자(→분위기 전환의 계기) 텔레비전 소리는 사라지고 폴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와 '방 안'의 분위기가 변화하게 된 것이

★1항목 후순위의 법칙

⇔문제의 지문 혹은 제시문이 (가), (나) 등의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고 선지에서는 그 항목을 1개 혹은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다. 이때 <항목을 1개만 가져와 설명하는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항목을 2개 이상 가져와 설명하는 선지>보다는 많이 낮은 편이다.

위 문제의 경우 선지 ①, ②가 각각 (가) 혹은 (나) 1개만을 활용하여 설명하는데 다른 선지보다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낮다. 이를 염두하고 항목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 선지 ③~ ⑤를 먼저 더욱 집중해서 보는 것은 정답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날 수 있는 풀이법이다.

“위와 같은 문제만이라도 선지를 꼭 ①에서 ⑤의 순서대로 봐야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자. **작은 습관의 변화가 정답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능 국어의 생명인 문제 풀이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44. <현대시>

#이해 #가장적절 #공감각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78 %	3 %	7 %	6 %	78 %	4 %

◆정답 ④

-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역동적)
-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율림.

⇒‘태양의 즐거운 율림’은 아침에 태양이 뜨면서 점점 빛이 비추어 밝아지는 형태를 소리가 퍼져나가는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다.(시각의 청각화) 이러한 아침 태양 빛은 물상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생기 더욱 생기(생생하고 힘찬 기운) 있게 해준다.

◆오답 풀이

- 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아침이 되어 어둠이 물러가면서 보이지 않던 물상이 점차 드러나는 상황이다. 사물들은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상을 배경으로 태양의 즐거운 율림을 받으면서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 ②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아침이 되면서 모습을 드러내는 물상을 역동적으로 표현하는것으로 노동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노동을 고단하게(부정적)보는 ②는 적절하지 않음.
- ③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아침이 되어 어둠이 물러가면서 보이지 않던 물상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새로 태어난 사물(새, 돌, 꽃)이 있긴 하나 기존의 사물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 태어난 사물을 맞이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 ⑤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아침이 되면서 밤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상황을 비유적으로표현한 것으로 사물들이 혼란을 겪는 모습은 아니다. 오히려 시는 노동의 시간을 즐기는 긍정적 분위기이다.

45. <현대시>

#일탈 선지 #감상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7 %	2 %	3 %	87 %	4 %	2 %

◆정답 ③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소통 할 수 없음!) →(통로의 끝을 나가야 소통)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연민)

⇒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은 화자의 텔레비전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에 대해 화자는 미안함이 아닌 연민에 가까운 정서를 보이고 있다.

⇒(만약 연민을 느끼고 그에 대해 화자의 후회나 반성이 있다면 미안함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음)

*연민: 불쌍하고 가련히 여김

*미안함: 남에게 대하여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러움
→(보통 후회나 반성을 동반)

▶연민이나 미안함의 의미를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확히 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모든 낱말의 뜻을 사전을 찾아 볼 여유는 없겠지만 해설에 나온 것만이라도 잘 익혀두자!

◆오답 풀이

①

- 1)텔레비전을 끄자
- 2)풀벌레 소리
- 3)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1)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지각2~3)함.

②

- 1)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 2)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 3)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1)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2)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됨.

④

- 1)브라운관이 뿔어낸 현란한 빛이
- 2)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 3)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그 울음소리들’을 인식하며 떠올림)
- 4)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 1~2) 때문에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 소리들’을 떠올리며3), 그 소리를 간파했던 삶을 성찰(놀라 되돌아간 것에 대한 반성)함.

⑤

- 1)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 2)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 3)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허파의 비유) 깊숙이 소리나 빛을 받아들이고 있는2~3) 자신의 모습을 확인함.

★대단히 유용한 팁★

♣일탈 선지의 법칙!

⇒ 5개의 선지중 하나의 선지가 산술적인 정답의 확률은 20%이지만 특정한 기준으로 선지의 핵심을 분류했을 때 나머지와 다른 한 개의 선지가 눈에 띄면 이를 일탈 선지라 칭하고 그것이 정답이 될 확률은 약 80%이다. ⇒(주로 선지의 핵심을 긍정-부정으로 구분)

*③번 선지가 좀 튀는 이유, 그리고 높은 정답의 가능성!

선지의 핵심을 긍정-부정으로 구분하면,

- ①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지각하고 있어. ⇒(긍정적)
- ② [B]에서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긍정적)
- ③ [C]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부정적) (☆실제 정답)
-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며, 그 소리를 간파했던 삶을 성찰하고 있어. ⇒(긍정적)
- ⑤ [E]에서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어. ⇒(긍정적)

⇒③만이 나머지와는 다르게 부정적 이미지이로 ④는 일탈 선지이며 지문과 발문에 상관없이 정답이 될 확률은 80%이다.

▶ 매우 주관적인 문학 문제를 객관식의 뚜렷한 정답을 설정하려다 보니 위와 같은 일탈 선지가 나오는 때가 있다. 이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다르다! 문제를 풀다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선지가 보인다면 다른 선지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 사소한 팁 하나가 문제 풀이 시간을 절약해 1점 더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보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2016 수능 A형 실전 후기”

<수학귀신페 x x>

화법과 작문을 마치 비문학 보듯이 정확히 정독했습니다.하나 하나 내용을 뇌에 박는다고 생각하고 빠른속도로 읽고 풀었고 문법문제는 올한해동안 ***선생님의 책을 5번정도 복습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풀어냈습니다.비문학에 들어가서도 돌림힘문제가 약간 헛갈리는듯했지만 작년에 미트나 리트같은 소재로 공부했기 문에 크게 어렵다는 느낌은 받지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조건과 뭐...기한? 뭐이런 법적재판과 관련된 지문이 나와서 한번 읽었는데 내용이 이해가 되질않아서 문제를 하나도 풀어내지 못 했습니다.하지만 두번읽으면 세번읽게되고 시험전체가 말할거같아서 포기하고바로 문학으로 넘어갔습니다. EBS를 보지않았지만 재수시절 약 10년이 넘는 기출을 너무많이 봐와서그래도 거의 알고있던 지문이었습니.

그렇게 다풀고 나니 시간이 약 15분정도 남더군요OMR에 마킹을하고 가채점을 적은뒤 재판지문위에 헛갈렸던문제 4개를 근거를 찾아 마킹하고 재판지문을 문제를 보지않고 지문만 2번정도 읽은후 다퓌뒤 마킹습니다.가채점결과는 문법을 만만하게봤는데 문법문제를 하나 틀렸더군요98점이 나왔습니

<수능만점입 x x>

대망의 국a시험지를 받고 시험시작
6평과달리 맨앞장이 쉽게출제되서 가볍게 넘김
14번 까지 막힘없었으나 14번 보기 2.3번이 너무헛갈림 복합어 가원지몰라 일단 패스
비문학 두근거리며 넘기는데 딱 보이는게 돌림힘, 광동신 본인 물1선택자라 개꿀ㅋㅋㅋ 생각하고 품 역시나 매우 쉽게 풀림 두개합쳐서 12분쯤걸린듯
술술 풀어가는데 무슨 소용? 지문이나음 기억도안남사실 ㅋㅋ 읽는데 하나도 안읽혀서 아...그냥 넘어감
문학은 딱히 어려운게 없었는데 나뭇에서 33번이 좀 고민 으나 보기에 써있는데로 생각하니깐 딱 답나와서 넘어감
45번 풀고나니 10분남아서 여유롭네~하고 검토하다가 아까 안퓌지문을 발견 진짜 이때 개멘붕와서 피버모드로 3문제 품 지문 다읽지도 않고 여기저기있는 단서들로 품 아까 못풀었던 14번도 2번으로 찍음

<애송이x>

대망의 1교시 국어입니다. 시험지 받고 제가 푸는 방식대로 11 번을 풀려고하는데 갑자기 안풀립니다. 태어나서 문법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다 아는 내용인데 글자가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10초 눈감고 명상하고 푸니까 다시 잘 풀립니다. 다행이네 하면서 문법풀고 비문학 푸는데 첫 지문이 조금 까다로웠으나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잘 풀고 넘어갔습니다. 평소와 같이 9시 30분에 마킹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컨디션이 좋은 것 같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은 예감이 들며 1교시를 마쳤습니다

<플x>

문법이 좀 까다로웠지만 인터넷 수능 화작문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문제들이었구요 비문학 같은 경우, 1-2 단락씩 끊어 읽으면 아주 수월하게 풀리는 난이도였음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시험볼때는 확실한 정답을 찾았다 생각되면 그냥 쿨하게 넘어가세요. 괜히 오답들도 하나하나 따져보다가 헛갈리기만 하고 시간 잡아먹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 ebs 덕을 많이 봤네요. 거의 대부분 작품이 연계되었고 덕분에 세이브한 시간을 어려웠던 문법, 비문학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어에서 틀리게 문학이라는 게 함정...ㅋ) 솔직히 비문학은 ebs 가 무의미하구요 문학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문법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는 아마 수모스한 1교시가 아니었을 까 생각합니다. (tip. 야자시간에 ebs 문학 답지 보면 시간도 잘가고 좋음)

<16의대간x>

드디어 국어 시험이 시작되었고 화작문 부터 풀기 시작했다. 화작은 무난하게 풀었지만 11번부터 문법이 막히기 시작했다... 조사는 단어지?...실질형태소.. 이형태.. 이 모든것을 묻는 것인가..?

그래도 개념을 공부한 탓에 잘 넘어갔고 15번에서 매우 당황했다. 15번 유형은 내가 경찰대 준비할때 가장 빠졌던 1~4번 유형이었다!! 나는 경찰대 준비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는 마인드를 가지며 짧으면서 간단한 문장이 답이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다(경찰대는 참고로 광탈했다)

화작문을 풀고보니 20분이 지났고 원래의 페이스보다 늦었다. 다시 침착하게 비문학을 시도 하는데 첫 지문부터 내 발목을 잡았다. 아니 물러라니.. 돌림힘은 너무 대놓고 물러 아닌가... 작년 필수아미노산을 생2라 우기는분들 있던데 이거 생2 아니다 --

아무튼 차분히 그림을 그려가며 푸는데 보기문제를 너무 오래 풀어 10분을 소비했다. 그뒤에 광통신과 철학?문제는 4분씩 걸린것 같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비문학을 만났는데 이젠 문개소린지 모르겠다.. 씨발 누가 나쁜새끼여 -- 강 둘다 양아치 같은데 답을 모르게...다 ㅠㅠ

시계를 보니 35분이 남았고 ... 이때 나는 마지막 지문의 한문제도 풀지 못했다.. 망했다는 기운이 엄습했지만 선생님의 말을 떠올리며 문학부터 풀기 시작했다. 다행이었다.

문학이 무난했고 특히나 나목이 매우 쉬웠다. 문학을 다 풀고 나니 7분이 남았고. 다시 차분하게 비문학 마지막 지문을 풀기

시작했다. 침착하게 한 문장 한문장 독해해나갔고

다시보니 문제가 이해 되기 시작했다. 결국 2분30초 남기고 문제를 다 풀었다. 난 안심하고 마킹하기 시작했다. 난 한번도 마킹이 이렇게 시간걸리는일인지 몰랐다. 마지막 2초를 남기고 나는 마킹을 다했고 정말 선생님들이 말하는 딱 마킹다했을때 종치는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 정말 숨막히는 국어 시험이 끝났고 결과는 98점으로 과정에 비해 정말 잘 나왔다..

<umfnLQcB2bjd x >

화작문 어법은 무난하게 풀었다 어법을 못하는 편이라 시험 시작전 ebs 문법다지기를 챙겨가 봤는데 하필 온 종게도 어법문제로 시험 30분전 봤던게 나왔음...비문학 파트로 들어가자 막히기 시작했다...하지만 평소에 비문학이 제일 자신있던터라 결국 적정한 시간안에 다 풀었다...문학으로 넘어갔다...강대 ***샘이 나올수 있다고 강조하신 유치진 소령 박원서 나목이 나와서 놀람...타임어택이 시작됨...결국 종료직전 아슬아슬하게 다 품...직감적으로 69보다 어렵지만 잘 봤다고 생각했건만 2점짜리 두문제를 어법과 문학에서 틀려 96점...1등급